



이순형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 서울대 의과대학 및 대학원(의학박사)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및 학장
- 대한 기생충학회 회장
- 한국외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서훈 : 국민훈장 동백장, 홍조근정훈장

즐거운

기생충

'기생충' 하면 가장 먼저 지저분하다, 느리다 등의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생충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기생충으로부터 낙관주의를 배우게 된다. 어미 기생충이 알이나 애벌레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것이 무사히 숙주에 들어가 성충(成蟲)으로 자랄 확률은 아주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은 조금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지런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참고 견딘다. 우리도 기생충의 낙관적인 생활방식을 닮는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받으면 대뜸 나오는 소리가 “기생충이죠?”이다. 그렇다고 할 수도, 아니랄 수도 없는 맹랑한 입장이다.

“네, 그렇습니다.”라든가 “네, 기생충입니다.”라 대답하면 정말 기생충임을 자인하는 셈이고, “아닙니다.”하고 매정하게 끊으면 용건이 궁금하기 마련이다.

때로는 한술 더 떠서 “기생이죠?”하는 친구도 있다. 처음 교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전화로 해서 시비곡절이 많았다. 화도 내고 싸움도 많이 하였다.

“아닙니다.”하고 딱 끊으면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하는 선배 교수의 호통이 터져 나온다.

전화란 것이 묘해서 “그래, 기생충이다. 어쩔래?”하고 고함을 쳤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통화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 말소리로 미루어 좀 만만한 상대라 여겨지면 “여보, 내가 기생이요? 팁 얼마 줄래?”, “당신 듣기에 내 목소리가 기생충 노랫소리 같우?”하며 공연히 애꿎은 사람에게 밀린 화풀이도 곤잘 하였지만 어찌랴! 그런 시비도 한두 번이지 걸려오는 전화마다 모두 그 꼴이니...

그렇지만 기생충의 덕을 볼 때도 많다. 기생충 공부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덧 기생충의 생태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친구들과끼리 모여 어찌다 회식을 할라치면, 서부 사나이의 권총 빼는 속도 못지않게 빠른 솜씨로 섶을 치렀는데, 이제는 느끼기가 기생충 같아져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꾸물꾸물하노라면 다른 서부의 사나이가 어느 틈에 계산을 재빨리 하고 만다. 이럴 때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할 터인데 똥판지같이 “나는 기생충이다. 좀 얻어먹은들 어찌랴...”하고 천하태평이 되어 버린다. 속 사정을 잘 아는 옛 친구들은 “기생충이 돈 있냐? 내가 내지.”하고 선심을 쓰기도 한다.

이런 물질적인 덕보다도 더 큰 혜택이랄 것은 기생충으로부터 낙관주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기생충의 복잡한 생활사를 보면 기생충에 걸리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미 기생충이 알이나 애벌레를 무수히 낳아도 그것이 무사히 숙주에 들어가 성충(成蟲)으로 자라날 확률은 아주 적어서, 밀천을 건지는 일은 거의 요행에 가깝다.

그런데도 기생충은 조금하게 걱정을 하지 않으며 제 할 일만 부지런히 계속하면서 참고 견디는 품이 자못 꾸준하다. 운명을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있는 기생충은 그런대로 종족을 유지해 갈 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대단한 동물 가운데 하나이다. 근심 걱정을 하는 대로 일이 잘 된다면야 누가 근심 걱정을 마다하라! 그렇지 않을 땐 차라리 기생충의 낙관적인 생활방식을 따르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또한 덕이 아닐 수 없다.

나도 의사라는 신분을 밝히면 누구나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슨 과를 전공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물음은 틀림없이 “왜 기생충 같은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가 된다. 그 어려운 의과대학 공부를 마치고 하필이면 기생충이냐는 듯 흥미 반 동정 반으로 묻는 두 번째 질문은 꼭 “왜 사느냐?”는 말처럼 들린다.

남들은 기생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판인데, 본 고장에 앉아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도 하고, 영재(英才)도 가르치며 또 많은 동포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 군자(君子)의 삼락(三樂)보다 더한 보람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그러면서 근근이나마 처자식까지 부양할 수 있으니 말이다.

누가 뭐라 하여도 기생충은 무궁무진한 학문의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보고를 가장 뜻 맞는 사람, 가장 아끼는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캐내는 생활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 보냐! 그야말로 “비가 오면 나막신이 잘 팔려 좋고, 날이 개면 짚신이 잘 팔려 좋다”는 고사(故事)의 할머니 심정과도 같다고나 할까!

숨죽여 긴장하며 떨리는 손으로 보물을 캐내는 일도 즐겁고, 새록새록 진귀한 보물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니 좋으며, 다시 다음번 보물에 대한 뿌듯한 기대로 한없이 부푸는 마음... 캐내는 즐거움도 큰 기쁨이려니와 다 못 캐내도 아랫목에 묻어둔 꿀떡처럼 호뭇하고 든든하다.

앞으로 할 일과 후배들에게 물려 줄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기생충’은 하루하루가 다 즐겁다. 🍷